

량수조선족향 설립 40돐 기념 다민족 문예축제 성황리에



5월 15일, 집안시 여러 민족 군중들이 량수조선족향 소재지 영천촌에 모여 다채로운 문예공연으로 량수조선족향 설립 40돐을 기념한 가운데 외지 관광객까지 합세하여 큰 200명이 조국의 번영창성을 기원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졌다.

오전 9시, 영천촌의 영천부락관광지에서는 량수조선족향 설립 40돐을 맞으면서 집안시문화관과 집안시조선족문화관에서 연합으로 특별 조직한 '문화하향'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두 문화관의 전업 배우와 그들의 지도를 받은 아마추어 배우, 집안시조선족로인협회, 유림진 유림촌 및 영천촌로인협회의 무용팀 등이 함께 어우러져 구성된 노래와 하늘하늘 춤

바람으로 영천촌 촌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공연은 집안시조선족문화관 부관장 최홍(崔红, 녀)과 업무관원 김홍(金鸿)의 한어와 조선어로 된 사회로 시작되었다.

축하차 근 60키로메터를 달려온 집안시조선족로인협회 무용팀이 <꽃나비 율령>로 첫무대를 장식했다. 이어 집안시문화관의 녀성독창 <항상 좋은 일이 있어>와 영천촌조선족로인협회의 무용 <붉은 해 변경 비추네>, 집안시조선족문화관의 무용 <희열>, 유림진 유림촌의 <풍수의 노래>,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 등 10여개 종목이 공연되었다. 집안시조선족문화관에서 선보인 녀성 2중창 <달타령> 노래가락이 울려 퍼진 가운데

방문차 영천부락관광지의 조선족민속문화전시관을 찾은 수십명의 외지 관광객들이 때마침 공연무대를 목격했다. 그들은 평소 보기 드문 조선족 문예공연을 놓칠세라 너도나도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강소성에서 왔다는 왕씨 성의 한 관광객은 "피서관광차 국내 가장 아름다운 현역 관광도시로 유명한 집안시에 왔다가 우연히 조선족민속문화전시관에 들렀는데 때마침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기로 유명한 조선족 배우들의 다채로운 민족 전통 문예공연을 관람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엄지를 치켜들었다.

영천촌의 90후 당지부 서기 리소룡에 따르면 촌에는 근 80명 조선족 촌

민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로인으로 촌로인협회의 회원들이다.

기자가 량수조선족향 향장 김해웅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량수조선족향은 1985년 5월 15일에 '향'에서 '조선족향'으로 개명한, 통화지역의 유일한 변경 민족향진이다. '가장 아름다운 변경도로'로 불리는 G331 국도가 향의 외치구촌, 통천촌, 해관촌, 영천촌, 량수촌 등 다섯개 촌을 경유하는데 국경선 길이가 32.5키로메터에 달한다.

9개 행정촌과 1개 사회구역을 관할하는 이 향은 면적이 174.83평방키로메터이다. 호적인구가 2,294가구에 5,725명이며 상주인구가 1,436가구에 3,849명이다. 그중 조선족이 1,801명으로 호적인구의 31.4%를 차지한다. 경자지 면적이 2만 6,870무이고 름지 면적이 20.4만무로 삼림피복률이 77.83%에 달하며 원지 면적이 9,890.4무이고 습지면적이 2만 9,965.25무이다.

량수향은 '평안시범향진', 제 5진 전성 민족단결진보건설시범단위 등 영예를 받아왔다.

영천촌은 성민족문화체육진흥기지로 선정되었고 량수변경파출소는 성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제 7진 전성 민족단결진보건설시범단위로 선정된 동시에 전국 제 10진 민족단결진보시범구시범단위 칭호를 수여받았다.

/유경봉 오근 기자

길림성, 비정규직 의료생육보장정책 최적화

입원분만비 전액 정산,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 생육수당금 수령 가능

최근, 길림성의료보험국은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세무청,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성당위 사회사업부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집단의료 및 생육 보장 정책을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의료 및 생육 보장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인구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더 잘 부합하며 비정규직 근로자(灵活就业人员) 등 집단에 종합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 정책 조정은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비정규직 취업자, 농민공, 신형 취업형태 등 5개 류형의 인원을 전부 생육보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 성의 2025년 민생실사의 하나로서 관련 인원은 규정에 따라 생육보험에서 지불하는 생육의료비와 생육수당금 등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생육정산을 강화하는 면에서 비정규직 취업자 신분으로 종업원의료보험에 가입 시 동시에 생육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입원분만비는 정책 범위내 자기부담금이 없이 100% 전액 정산된다. 동시에 산전 검사, 계획생육 등 생육보험 생육의료비 정산을 새로 추가했다. 연속 가입(连续

参保) 조건에 부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출산후 생육보조금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생육보조금은 납부 기수를 발급 계산 기수로 하여 98일로 확정한다.

납부 기준 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업원(생육)의료보험 납부 기수는 기존의 사회 평균임금 100%에서 8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전 성적으로 통일된 비정규직 근로자 의료보험 납부 비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생육보험 납부 비율을 신설하여 혜택 수준의 공평성과 적절성을 높였다.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 의료보험을 재직에서 퇴직으로 전환할 데 관한 절차도 개선했다. 더 이상 호적지 및 호적정질 등 조건으로 가입을 제한하지 않으며 본 성에서의 기본양로금 수혜 여부를 퇴직자 의료보험 혜택 적용을 위한 필수 선제 조건에서 제외했다.

길림성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납부 기수, 납부 비율 및 생육보험 혜택 관련 정책은 전년도 사회 평균임금을 공포한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기타 정책은 2025년 5월부터 적용된다. 길림성은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8가지 보조생식 기술 및 분만진통 항목을 의료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생육 우호형 도시건설을 조력할 계획이다.

/길림일보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실제적인 조치로 향촌 진흥 고품질 발전 조력

최근년간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줄곧 '방조지원사업'을 향촌 진흥 전략의 실시에 조력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실질적인 성과로 향촌 진흥의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왔다.

관개수로 보수

일전,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개산촌진 선구촌의 관개수로가 파손되어 농작물 생산과 농민 수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룡정시수리국과 조율하여 선구촌의 관개수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의 질과 진도를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그들은 전반 시공 과정에 대해 철저한 현장 관리를 했다. 15 일간의 집중 시공 끝에 306미터의 관개수로가 기능을 완전히 회복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공사로 42헥타르 눈에 정상적으로 물을 댈 수 있게 되었고 69가구에 21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농작물 증산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



뜨락경제 활성화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향촌 진흥의 핵심으로 촌주제 사업조의 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원 우세를 지속적으로 발굴 통합했다. 촌민들을 이끌어 뜨락 안팎에 소규모 과수원과 채소밭을 가꾸어 '뜨락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길을 부단히 모색했다. 당원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촌민들의 수확을 돕고 지도간부가 앞장서서 도급촌

의 '뜨락 제품'을 구매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촌민들을 도와 판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촌민들로 하여금 '뜨락'의 치부 성과를 느끼게 했다. 뿐만 아니라 '뜨락경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확실하게 추진하여 향촌 진흥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으며 도급촌에서 특색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농망기 촌민들의 외출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촌의 갈림길과 급커브길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도로 시야의 사각지대를 효과

적으로 제거, 촌민들의 안전한 외출을 보장하였다.

레저헬스장 조성

'작은 시설'은 백성들의 '큰 민생'과 관계된다.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촌민들의 신체건강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주력했는데 관련 부문과 조율하여 촌에 촌민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레저헬스장'을 건설하여 촌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따스함'을 더했다. '헬스장'의 운동기구들은 조작성이 편리하고 기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레저, 오락 등 재미도 하고 있다. "여전에는 운동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집앞 광장에 운동기구가 있어 촌민들의 레저오락생활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선구촌 촌민 장씨 할아버지는 말한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빈곤해탈 난관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것과 향촌 진흥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이다. 그리고 방조지원단위의 조력, 협력, 봉사 등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실제적인 관심으로 광범한 촌중의 행복지수를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책임자는 말했다.

/정현관기자

변경 주민들에게 재해방지 안전교육



5월 12일, 제 17번째 '전국 재해방지 선전의 날'을 맞이하여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에서는 '모두가 안전에 류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며 주변의 재해 위험을 제거하자'를 주제로 일련의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경찰들은 활동 과정에서 한어와 조선어 두개의 선전소조를 구성하여 장백통상구 국경다리과 대조선변경무역구, 변경무역시장, 빈강공원 등 인원 밀집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경찰들은 오가는 차량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악재해지역에서 지진, 화재, 홍수 발생 시의 비상 대처 방법,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절차, 개인 신변 안전 및 재산 보호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또한 지진예방, 홍수대비, 산림방화, 전기안전 등 일상 속 안전 지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집중 선전하여 광범한 군중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비상조치 역량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의 이번 활동은 장백통상구와 변경무역시장의 재해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장백현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인 견인 역할을 수행했다.

/공복룡(宮福龍), 최창남

图说 核心价值观

富 民 文 和 自 公 法 爱 教 诚 友
强 主 明 谐 由 等 正 治 国 业 信 善

诚信是福

山西运城 李惠芳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